테슬라 자율주행 오토파일럿

김성은 박유빈 임채현

인간은 꾸준히 변화를 추구한다. 교통수단에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비행기가 만들어진 이후 날아다니는 자동차나 자율 주행하는 자동차 등 다양한 상상력 속, 빠르게 발전하는 우리의 사회를 보면 조만간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테슬라라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된 자동차의 자율주행 영상을 공개해 화제가 되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영상은 운전자의 조작 없이 차량 스스로 내비게이션을 따라 목적지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차량의 주행 코스는 한적한 고속도로가 아닌 혼잡한 도로와 신호가 없는 교차로 등을 경유하는 구간으로 실제 운전자를 대신 해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스스로 인지하고 결 정을 내려 주행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영상을 보고 처음에는 과거 우리가 상상하던 미래가 현실화된 것 같아 마냥 신기하고 편리해 보이고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고 느꼈지만 생각해 볼수록 실제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변수에 대처할 모든 알고리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안전은 늘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저번 윤리적 판단 테스트에서도 느꼈다시피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답은 없으며 판단을 인공지능에게 완전히 맡기는 것은 너무 위험한 것 같다. 결국 인공지능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간에 의한 해킹의 위험성도 다분해 보인다. 그리고 sbs에서 중국연구진이 테슬라 자율주행 자동차를 해킹해서 시스템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었다. 20km 떨어진 곳에 있던 해커는 자율주행차를 해킹해 운전자 몰래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런 점은 분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자율 주행 차라는 이유로 사고 후 처벌을 덜 받으려는 사람 또는 시스템을 해킹해 주행에 방해를 하는 사람 등이 생길 것이다. 이러 다양한 경우를 따지고 보면 자율 주행 자동차는 단점이 더 많은 걸로 보인다. 또한 자율주행,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면서 핸들, 브레이크, 기어 등은 왜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위급상황이 닥쳤을 경우 결국 인간의 선택 하에 자율주행 하던 차량을 수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인지라는 생각도 든다. 언제 올지 모르는 긴급상황을 대비해 오토파일럿을 감시하면서 긴장된 상태로 운전을 할 바에는 그냥 우리가 직접 운전을 하는게 더 마음이 편할 지도 모른다. 차라리 인간의 판단 하에 기계적인 자동자의 모든 조건들을 자동적으로 운영하는 반자동 운전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편리하면서도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도 유리한 운전방식이 될 것 같다. 혹은 일부 시스템에게만 자동화를 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자동주차, 자동 와이퍼, 비나 눈이 올 때 자동적으로 감속하는 시스템 등이다.

점점 시대가 발전하고 기술이 더욱더 발전하면 지금 보다 더 좋은 기술이 새로 도입되고 자동화된 시스템은 대중화가 될 것이다. 그때까지 문제점을 잘 해결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